

# 한국 불교문학의 화두는 ‘굴절’과 ‘낮설게 하기’

## 이도흠 한양대 교수 ‘불교평론’ 열린 논란 특강

이도흠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7월 21일 강남구 신사동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불교와 문학’을 주제로 7월의 열린논단 강의를 진행했다.

열린논단은 계간<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평연구소가 공동주관하는 전문가 초청 강연회로 우리사회 주요 현안과 이슈 등을 짚어보는 토론의 장이다.

강연에서 이도흠 교수는 ‘불교와 문학의 상충상입(相即相入)과 한국 불교시(詩)의 나아가 길’을 오래 전부터 불교를 통해 소재나 주제의 측면에서 많은 상상력을 확보해 온 한국문학의 친연성과 연관시켜 설명했다. 한국 불교문학 가운데 한국 불교시가 나아가야 할 방법을 6가지로 범주화 해 눈길을 끌었다.

정리=천진영 기자

### 이도를 버려야 좋은 문학 작품

이번 발제의 핵심은 한국 불교와 문학이 어떤 관계이고 한국 불교문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개 불교문학을 다루는 방식은 시에 나타난 불교사상을 엮어서 해설하거나 거기에 담겨있는 불교사상을 풀어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작품의 문학성이 훼손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문예창작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를 잘 쓰려면 이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도가 드러날수록 그 시는 좋은 시가 되지 못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자신이 밥새워 쓴 연애편지가 아침이 되면 너무 유치잔란하게 느껴져서 전해 주지도 못한 채 버려지는 이유는 이도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보고 사랑하는 이가 약속 장소로 나오게 하겠다는 등의 이도가 앞서기 때문에 글을 망치는 것입니다.

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장소에서 골을 못 넣는 이유가 바로 힘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축구를 할 때도 감독들이 선수들에게 “힘 빼라, 힘 빼고 해라”고 요구합니다.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도가 드러나지 않고 감출 수록 좋은 문학이 됩니다. 비평에서는 “이것이 어떤 불

교사상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평가 스스로 “그 작품은 문학성이 없다”, “그 작품은 의도가 많이 들어난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 불교 사상·경구 초월해야 좋은 작품

시조는 약 4500여 수가 됩니다. 문학성을 따졌을 때 이 가운데 버려야 할 시조가 3000여 수에 이른다고 합니다. 버려져야 한다는 시조들은 그냥 성리학 교과서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시조들은 성리학의 이념을 3장 6구 형식에 맞춰놓았을 뿐 시조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불교문학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설하거나 비평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지양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불교미학이라는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견해로는 미학 이론이 아니라 불교의 경전이나 사상 가운데서 예술과 관련된 언급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것이지 미학이 아닙니다. 적어도 미학이라고 하려면 문학으로, 예술로 어떻게 형상화가 되느냐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먼저 교리가 있고, 교리와 예술을 연결하는 형상화된 체계적인 이론이 있어야 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매개 없이 불교 미학이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불교미학이론의 수준은 경전이나 교리 가운데 예술과 관련된 것의 해설 또는 교리의 해설을 넘어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이 기존의 불교 문학을 다룰 때 일반적인 경향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같은 경향을 넘어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말을 방편으로, 삼는 인연견언(因言遣言)

불교는 교리·부처님 말씀마저도 파괴해야만 진리와 실제에 다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석가모니께서는 “형상으로 나를 보면/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 이것이 샅미를 행함이니/ 여래를 볼 수 없네(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라고 했습니다. 불교 교리상으로는 불상이나 계승을 만드는 것은 불법의 진리를 억압하는 일입니다. 불교는 선종이 나오기 전부터 궁극적인 실체는 말을 떠나 있다고 봤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제가 A라는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말로도 100% 다 표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도 말씀을 하는 대신 연꽃만 들었다 냐다 하셨던 것입니다.

궁극적인 진리는 말을 떠나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어의 기호에 의해 세계를 들여다보고 표상

하여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입을 꼭 다문 채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일어난다면 아무도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본질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매일 똑같지만 가끔 씩이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야 더 맛있는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진리를 전달하는 보편적인 방법은 또 말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연견언(因言遣言)의 논리입니다.

말은 방편입니다. 설법을 방편으로 이용해 설법 너머의 진리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원효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켜서 달을 보라”라고 말했고, 비트겐슈타인은 “지붕 위에 올라가면 사다리를 버려라”고 했습니다. 이는 성인이나 현인이 깨달은 궁극적인 진리는 말을 떠나 있지만 말을 방편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인연견언의 이치를 잘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 의도는 숨기되 사상은 녹여라

### 마르셀 뒤샹의 작품 ‘샘’ 처럼

### 같은 것도 다르게 볼 수 있는

### 새로운 시도와 상상력 절실해

지금까지 진리에 도달하게 도와주는 방편으로서 불상과 문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학과 불교가 만나는 접점인 ‘시’라는 방편을 통해서 어떻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좋은 불교문학은 불교의 교리를 노골적으로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문학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숨어있는 진리를 들어냅니다. 좋은 불교 문학의 예로 (제망매가)를 들 수 있습니다.

죽고 사는 길은/에 있으며 머뭇거리고/나는 갑니다/ 말도 못 이르고 가나고/ 어느 가을날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일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는저/아, 아! 미타찰에서 만나리니/ 내 도 닦아 기다리이다.

어려운 용어 하나 없는 쉬운 향가입니다. 미타찰이라는 용어 하나만 빼면 불교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겨볼 수록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만남이 있기에 이별이 있고 이별이 있기에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삶과 죽음은 투쟁의 관계가 아닌 화평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한국인은 뜨거운 것을 먹으며 “시원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같은 동양권인 중국이나 일본인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개념입니다. 한국인은 특별히 삶과 죽음, 뜨거움과 차가움을 하나로 이해합니다. 기분이 최고로 좋은 상태 일 때 “죽인다”고 말합니다. “이도흠 선생 강의가 오늘 휴강이래, 오늘 죽이는 날이다” 이런 식입니다. 죽이는 날이 최고의 날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상이 바로 제망매가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

만남은 이별입니다. 남이 나에게 오는 순간 그 남은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절대의 그 남이 아닙니다. 만남은 헤어집니다. 헤어지는 순간, 남을 절대화하여 절절하게 그리워하니 이별은 만남입니다. 만남이 있기에 이별이 존재합니다. 언제인가 이별할 것을 알기에 사람들은 마지막처럼 상대방을 아껴주며 사랑을 불태웁니다. 처절하게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이별은 없습니다. 이별을 전제하지 않는 사랑은 모든 것을 던지지 않습니다. 이승이 있어 저승이 있고 저승이 있어서 이승이 있습니다. 삶이 있어 삶의 끝인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기에 사람들은 언제인가 자신이 소멸할 것이라는 유한성을 인식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성찰하고 하루 하루를 의미로 채우려 하고 타자에게 자비나 사랑을 베풁니다.

삶은 밤을 먹어 신진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세로는 늙으니 삶이 곧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죽음에 가까이 갈수록 사람은 성스러워지고 그 삶은 의미로 반짝입니다. 낙엽이 떨어졌다고 하여 그 나무가 죽었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육체가 소진했다고 사멸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이별이라고는 더욱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낙엽이 떨어진 자리에 봄이 오면 싹이 돋고 꽃이 피듯 삼라만상은 순환합니다. 모습만 달리 할 뿐 없다고 하는 순간 모든 것은 존재합니다.

### 예술과 불교의 공통점은 낮설게 하기

낮설게 하기. 이는 예술의 근본이고 본질입니다. 영국의 비평가들은 피카소를 제치고 ‘뒤샹의 샘’을 20세기 최고의 예술로 뽑았습니다. 뒤샹의 샘은 공장에서 만들어져 시중에 판매되는 소변기를 설치해 두고 ‘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당시 이 작품은 발표 직후 미술관에서 주방당했기 때문에 사진으로만 남아있을 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뒤샹의 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입니다. 공장에서 미술관으로 소변기를 옮겨왔다는 것만으로도 뒤샹의 샘은 20세기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술의 근본이고 본질인 낮설게 하기는



이도흠 교수는 불교평론 편집위원이자 한양대 국문학과 교수다. 조계종 포교원 통일법요집 편찬의 원이자 실상사 화엄승가대학원 외래 교수이기도 하다. 한양대에서 의상·만해 문학 연구를 하고 <문학과 경제>의 주관을 지냈다. 의상과 만해 연구원 연학실장, 한국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화쟁기호학, 이론과 실제>, <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 등 23권이 있다.

불교의 정신과 일맥상통 합니다. 많이 공부해 많이 알게 되더라도 또 다 버려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낮설게 하기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연기론’이 녹아 있어야 합니다. 불교 용어를 몇 개 차용했다고 해서 불교문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 연기론 녹아 있어야 불교문학

서양인들은 실존적 사유를 하고 동양인들은 관계 중심적인 사유를 합니다. 어항을 보여주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서양 학생들은 어항과 물고기만 그리는 반면 동양 학생들은 어항을 받치고 있는 책상과 물품, 어항 뒤의 벽까지 그려 사과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불교에서 핵심 단어 하나를 고르라면 ‘연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삼라만상이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연기는 관계 중심적 사유의 진수입니다. 불교 문학에는 이

### 사상의 반영을 넘어서 굴절시켜야

프리즘에 빛이 통과하면 무지개로 변합니다. 이처럼 불교사상이 문학에 투영될 때에는 불교사상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굴절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학·언어라는 방편을 넘어 진리와 실제의 세계에 도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독자들도 텍스트에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결국, 불교사상과 이데올로기를 벗어나 자유롭게 상상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학이 좋은 문학이 됩니다. 바로 이런 문학이 한국 불교문학의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상표출원 : 41-2011-0020246

## 새로운 개념의 여성의류판매점 & 커피전문점

# 패션카페 전국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불자여러분!  
귀의삼보하오며  
상생을 넘어 공생으로서 공심으로 무주상보시를 이루는 그날까지  
패션카페를 벗삼아 재료삼아 함께 웃고 해나기실 도반을 모집합니다.

**재고가 전혀 없는 옷가게 패션카페**  
본사에서 매주 재고는 거두어가고 새로운 디자인을 공급함으로서  
대리점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커피전문점 패션카페**  
좋은 원두 커피와 다양한 메뉴를 거품없는 가격으로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여성의류와 패션잡화 등의 판매수익으로 수익성은 많이 높아집니다.

**저렴하고 실질적인 인테리어 패션카페**  
유행따라 인테리어를 바꾸시지 않아도 되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편안한  
분위기로 설계하여 시설비에 많이 투자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지 사 : 점포 100m2 이상 / 대리점 : 점포 30m2 이상

전화문의 : 070-7759-0852 , 02-584-0543

www.fashion-cafe.co.kr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6-5 (3호선 남부터미널역 6번 출구)